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33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우리교회 예배당에서 5월6 ~ 9일, 전국에서 4천여명이 참석

수요 I 부예배 갈릴리홀에서

제 33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오는 5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우리교회 예배당에서 열린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눅 5:4)는 주제로 열리는 금번 기도회는 전국에서 4천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가할 예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21세기의 새로운 교회상 정립을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삼게 된다.

새벽기도회(오전 5시 30분), 오전 강의(오전 10시), 오후 강의(오후 2시), 저녁 집회(오후 7시)로 진행되는 3박 4일간의 모든 진행과 담당은 총회 임원들과 실무진이 하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의

강사는 조종기, 이종영, 이성현, 정성구, 김의환, 김의원, 정석홍, 김준규, 김창인 목사 및 전익준 장로이다.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5월 8일(수) 저녁 집회 시 설교를 담당하게 된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는 우리 교단의 전국 목사, 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단의 큰 행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관계로 수요1부 예배만 갈릴리홀에서 드리게 되며,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오전 5시에 갈릴리홀에서 모인다.

오늘 공동의회

IV부예배 후, 본당에서

교회는 오늘 IV부예배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갖기로 했다.

공동의회에서는 오는 5월 19일(주일) 제29대 장로 20명, 제10대 안수집사 40명, 제38대 권사 70명을 선출하는 데 따른 후보자 추천 문제를 의논하게 된다.

오늘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라 5월 12일 <주간충현>에 후보자 명단과 사진을 게재하고 5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

5월의 행사

- 1일 정기당회
- 2일 주부교양강좌(3)
- 5일 어린이주일
공동의회
임시당회
- 6-9일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 7일 주부교양강좌(4)
- 12일 어버이주일
사랑의 헌혈
- 14일 주부교양강좌(5)
- 15-16일 교사단기수련회
- 19일 공동의회
(장로·집사·권사 선거)
- 23일 소석장학회 후원회원의 밤
- 27-31일 충현기도원 설립
18주년 기념 부흥회

변춘옥 전도사 사임

출판국 부지도로 수고하던 변춘옥 전도사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사임했다.

제28회 국가조찬기도회 대통령 치사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뜻깊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며,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아침의 기도회가 먼저 4·11 총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과 민의를 겸허하게 마음에 새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엄정하며 공의로우신가를 저는 재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저희 내외는 아침기도회를 가진 다음, 투표소에 갔으며, 투표하기 전에 다시 마음 속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당에게 안정의석을 주시면서도, 한편 과반수 미만을 허락하신 것도 대통령인 저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라를 함께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성의 낡은 사고와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삶으로 구현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구각과 야집과 편협의 굴레를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나만이 정의롭다는 강변을 정당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삼아서는 안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정의의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사회, 신명나고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의에 기초하고, 그 정의는 사랑에 기초할 때 든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한 자가 보호받고 강한 자가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국가에게 위임하셨고, 그 책임을 대통령인 제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후 망국적인 ‘한국병’ 치유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를 건설하고 후손들이 안정과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6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제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결같이 한국을 배제한 미·북한 회담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서해안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직접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초한 가운데 제주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오판에 대해서도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무한 경쟁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실로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창의력과 능력 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야 합니다. 세계화에 성공해야 일류 국가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세계화는 정신 혁명에서 출발합니다. 종교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며, 기독교인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인 고뇌와 사색에 잠길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래는 다윗의 기도를 자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광대 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소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

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 여러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독교인과 교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 그리고 장애인 사랑 등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찬기도회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전해 주신 홍정길 목사님과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부족한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30일
대통령 김 영 삼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저녁 집회 ○

다윗의 신앙 간증

(시 23:1-6)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강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서 <주간중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찬송 한 장 부릅시다. 340장 1절, 4절 부릅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한 번 받아 하십시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밤에는 ‘다윗의 신앙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믿음 공부를 한번 더합니다. 더 받아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가 있어요. 한 번 더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스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원이 되는, 또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받아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을 가지면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과거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 재주를 바라보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는 줄 믿으세요. 한번 더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처럼 믿음은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사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서 돌듯이 항상 구심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지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충만히 가진 것이 세상에서 제일 복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충만 충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또 믿음의 간증서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한번 받아 합시다. “믿음으로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사나이까(요13:36-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온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징조를 구하라(사 7:10-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마 6:4-9)

예수는 므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동행했어. 동행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이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아 하세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뭐 많더라? 받은 증거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한번도 그런 게 없으면 믿음이 안 온 거예요. 오늘 저녁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 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는 므두셀라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 왜 므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도 뜻을 잘 모르겠어요. 주석 책을 읽어봐도 신통치 않아요. 속 시원한 주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195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섬기던 본 교회에서 전도사 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례금은 못 준다고 합니다. “사례금 줄 만큼 교회의 재정이 없으니 양해해서 그래요 하겠나?” “아이고, 사례금은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녹 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주중에는 신학교 올라오고, 또 주말에는 교회를 맡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보다도 열 살쯤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이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받는다. 딴 데 가 해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요, 뭐 나가지 마라 해도 때가 되면 나갈텐데 여기서 좀 쉼시다.” 날 좀 키워 주라고 하니 자꾸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거 자존심 상하네요. 생활비도 좀 주면서 나가라 하면 몰라도 생활

비도 안 주면서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어제까지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밤새도록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는걸까요. “아버지여,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어데 갈까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부끄럽고 만만한 게 처가라, 처가에 갔습니다. 가서 “장모님,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방 있거든 한 칸 주세요.” “아니 자네와 그러냐? 쫓겨나왔구나.” “쫓겨나오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나오려고 합니다. 교회에 욕 돌릴 수는 없고 나오려고 하니까 방을 하나 빌려줘야 안합니까?” “아유, 큰 방은 자네 큰 처남이 있고 그 다음 방은 나하고 애들하고 있고” 우리 처가에는 방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방은 피난민들이 와 있어서 빈 방이 없다고 그래요. 6·25전쟁때 방이 있었습니까? “방이 없다.” “그래도 한번 찾아 보고 있거든 나를 빌려주세요.” 그래 가만 생각을 하시더니 “벽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지내겠는가?” “아이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는데 벽장이 어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벽장은 기어 들어가고 나가는 벽장이라예. 엎드려 들어가야지 서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도 그 방에서 몇 년을 살았고 큰아이도 낳았습니다. 큰아이를 낳았는데, 여기 아버지 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별로 느끼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애기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히야, 큰일났구나. 애기가 나온다는데, 방이 한 칸 있나, 이불이 있나, 기저귀가 있나, 미역이 있나, 쌀이 있나? 야 이거 큰일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그야말로 그거는 ‘긴급 동의’라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를 주시면 어찌 한탄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한답니까? 아버지여, 기저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미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무더기로 안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그래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까 아침 새벽 종소리가 나고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벽기도를 하는지 안하는지 정신없어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철야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대학까지 나오는데 한 번도 공납금을 준 적이 없고 다 장학생으로 컸다는 것이고, 또 철야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기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저녁 집회 ●

도를 하다 보니 금요일 밤이라, 금요일 밤만 되면 철야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 불어나고, 두 사람 불어나고, 세 사람 불어난 것이 지금은 천 수백 명이 철야기도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기도로 받느냐, 불평으로 받느냐, 원망으로 받느냐 등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해요. 받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받아 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는 므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 동행하므로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큰 믿음이네요. 우리의 믿음은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역전(力戰), 신앙의 순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어 죽지 아니하고 역사상 예수님 빼고 엘리야와 더불어 하늘에 승천한 위대한 신앙의 선조, 신앙의 선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 심판의 예고를 받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더니" 어찌 되었어요? 모두 물로 심판받았는데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받아 하세요.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받아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고 천 척집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주여, 고향 떠나서 뭐 먹고 살니까? 장사 하려면 돈 빌릴 데도 여기 있고 전답도 여기 있는데 고향 떠나면 뭐 먹고 살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보고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장 건너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상의 문화, 천적,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살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손자대에 가서는 총리대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윗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레위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아셀지파에서는 세계 경제인들에 나오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똑똑하게 살면 틀림없이 믿음의 결과, 간증거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좁소서
(1절만 한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좁소서

믿음 공부 한 번 더합시다. 다 같이 받아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 말씀, 말씀으로 믿음이 생산되

체함을 하게 되었어요. 불을 구경하는데 불 속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모세여,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는 깜짝 놀라 신을 벗고 음성을 엿드려서 경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아이고, 저는 못 잡니다. 자신 없습니다. 댄 사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을 품 속에 넣었다가 내어 보아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자로 일생 동안 살겠느냐, 깨끗한 몸으로 주를 섬기다가 내 앞에 오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다시금 손을 품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순간에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애굽에 가거라." "애굽에 가기는 가겠는데 애굽의 임금이나 우리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겠느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이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고 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예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뜻이옵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아버지여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되게 하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고 주린 자를 배불리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도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주린 자를 배불리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위대한 말씀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세계 역사 가운데 당신의 보배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함께 하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있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한번 더,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고 주린 자를 배불리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고 죄인을 새 사람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또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27살에 목사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가 된 날부터 저에게 자꾸 존대말을 쓰세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어무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들인데 목사님이 뭐예요." "아니예요. 이제부터는 주의 종이니 예전같이 그렇게 안 부릅니다. 목사님, 와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자꾸 존대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전라도 광주로 도망가서 광산교회라는 교회에서 3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젊은 목사가 왔는데 꽤 들을 만한 설교를 한다더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모이는가 하면 물이 모입니다. 물, 물이 모이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왔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100명이 온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니래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려니까 소피아여중교의 윤효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예, 오늘 학교 안 가셨습니까?" "오늘 꼭 가야 될 곳에 있어서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외삼촌이 제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일 하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데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아 그래요. 일단 가시고 구두끈을 매는데 뒤통수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예배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지식이 뭔데요?' '우리 삼촌은 철학자입니다.' '뭐, 철학자요?' 그때는 교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오면 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더라. 철학자라고 하는 바람에 놀랐어요. '철학자는 철학자인데 관상 철학자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믿었더니 제일 중요한 것 "소생" 즉 중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육신이 잘되는 것은 귀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육신 생활 떠나야 우리 자녀들 잘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느니라" 믿습니까? 한번 더 받아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살아온 자기의 신앙의 역경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은혜로운 신앙의 간증이기도, 수 천년 동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저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새편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신앙고백입니다. 받아 하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좀 새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을 풀이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된 불입니다. 그 불을 보고 있으려니까 모세가 점점 거룩해지는 신령한 영적인

통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받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이 이름은 대단히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곧 '주'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밖에 안부르는데 그 이름은 밖에서 나와서 '아도나이', 곧 '주'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니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발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름의 뜻은 신비롭고 깊은 뜻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것을 다 말씀할 수 없고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받아 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 "나는 되게 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받아 하세요. "나는 좋은 일을 되게 하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찬송을 불렀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네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 집으로 만대에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그가 능하신 팔을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 (4월 2일) 저녁 집회 ●

라고요 '하, 이거 갈수록 태산이다, 이거. 관상철학자라.' 그래 머리가 쑥 돌아가는 것이 "집사님, 그 어른 돌아가실 분 같으면 내가 지금 심방가는 길에 죽을 것이고 살 사람 같으면 3일 후에도 살아 계실 줄 나는 믿어요." 하니까 "그렇지라우." "3일 후에 가서 심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내 놓고 어디로 갔나 하면 충창로에 있는 늘 가는 서점에 갔어요. 가난한 목회를 하는데 책 사볼 돈이 없어서 하루 30분씩 관상학책을 빌려서 보았습니다. 책을 보다가 잠깐 놀랐어요. 사람 얼굴의 주름살이가 모두 글이라는 기예요. 얼굴의 주름살은 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이 많으면 주름살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라요. 소위 운명론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해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저자가 '만상이 붙여 심상이라' 얼굴이 벌여 먹을 상이라도 마음속으로 나는 안 벌여먹는다 나는 안 벌여먹는다 하면 안 벌여먹고, 부자상으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아도 한 번은 벌여먹겠지 하면 그만 벌여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끝에 가서 결국은 종교하고 연결을 시켜 놔서 기라예. '만상이 붙여 심상이라' 관상책 더 볼거 없었어요 책 한 권 다 읽고 나니까 그래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윤선생님이 소개를 얼마나 부풀려서 해놔는지,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목사님 이신데 그 분은 독서가가 돼 가지고 사서삼경을 다 읽으시고 팔만대장경을 읽으시고, 세계 문학집을 다 읽으시고,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를 잘하고 굉장한 사람인데 삼촌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아주 재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래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3일만에 가서 그 환자보고 절을 너무시 하고 "고생이 많습시다." 했더니 나를 혈투 보고 별것도 아닌데 조카가 부풀려서 추천을 많이 해 놔습니다. 묻지도 안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선생님" 목사님 하다가 선생님 하더니만 "목사님, 선생님, 제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꿈을 하나 꾸었어요. 꿈을 하나 꿴데 우물에 빠졌어요.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아 요래 빠져도 팔뚝 팔뚝 뚫고 내려 갔었어요. 그 꿈 꾸고 나서 내가 뱀에 걸렸어요. 나는 따이 금년에 죽을 천수구나 싶어 가지고 마음을 조금씩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내가 눈을 제그시 감고 "만상이 붙여 심상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네, 목사님에 관상을 아시라우?"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선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관상을 모르겠습니까? 선생님만큼은 안 읽었어도 조금 읽은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본 책은 사본인데 내가 본 책은 원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좀 보태 가지고 내가 본 책은 원본이고 선생님이 본 것은 사본이라고. "아이고, 원

본이 뭔데요?" "성경이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어라우." 그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금년에 사주팔자를 보니까 죽을 사(死)자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만드시고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분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습니까? 선생님에게 죽을 사(死)자가 딱 나왔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관상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관상철학적 설교를 했는기라예.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아이고, 그랬어라우." 그래 가서 관상철학이 서서히 무너져 버린 거라요. "거 아무것도 아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가 뭇인지 잘 모르지만 드려주이소." 그래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고 절을 하려는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절은 하나님께 하시고 여기 앉아서 얘기나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여러 분 심령 속에 운명을 믿는 마음을 회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운명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큰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소멸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후 그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대꾸로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같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되게 하는 하나님" 한번 더, "낮은 자를 높이시고 팔자를 고치시고" 믿습니까?

제가 우리교회 장로님 한 분의 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한번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한번더 후렴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첫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두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번째는 출세게 하시며, 네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문이 열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식구들 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나 큰 걱정이라요. 무슨 걱정이고 하니 죽어 버리면 우야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 조카 되는 윤묘순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팔도 잘 하네. 그런데 물에 빠져' 이래 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는 답답하면 산 기도를 많이 갑니다. "아빠지여, 이번에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음에 죽지 이번엔 한번 살려주세요." 하대 얼마나 얼마나 기도를 열심해 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걱정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병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금박 박힌 선구약 성경을 사와 가지고 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자 책을 열에 놓더니 내게 큰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보다도 연세가 배가 더 되는 50, 60에 다된 사람이 그래 27살 된 목사보

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이 장로님이 하루는 아침에 다리를 쭉 뻗고 울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리 우세요?" "우리 집은 오래 못 살아예. 오래 못사는데 그것도 50을 잘 못넘겨요. 우리 아버지 49, 우리 형님 50, 내가 금년에 51살인데 한 살 더 들었습니다. 금년 아내로 죽지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 제가 "그 분들은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까?" "안 믿었어예." "장로님은 안 죽습니까. 장로님은 안 죽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관상철학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가만히 듣고 "믿어도 됩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고는 84살까지 사셨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제 관상학적으로 뭐예요? 벌여 먹을 상 아십니까? 맞지요. 낮은 자, 주린 자는 모두 벌여먹을 상이지요. 하나님 생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자못 운명을 믿는 마음, 관상을 믿는 마음, 수상을 믿는 마음에 있으면 생령으로, 능력으로 고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는 것이 죄고, 안 믿는 것이 실패고, 믿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다같이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환자를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다같이 "마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즉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으로 다같이, "마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즉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됩니다.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당회원을 깨설니다만 당회에서 외논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러므로 받아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즉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도다 부자가 되도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려야 되요. 찬송을 부르고 찬도를 하고 회의를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제는 아주 배상(配霜)이에요.

받아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 뭐예요? 너무 간단하게 사는 것에 부끄럽습니다. 또 죄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받아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도다" 예수 믿으면 영육에 아울러 부자가 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저녁 집회 ●

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능력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간직하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고 찬양합니다. 받아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네 가지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입니다. 받아 하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간증할 게 수백개 되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네 가지를 고백했어. 첫째로 다같이 받아 합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믿었더니 제일 중요한 것 "소생" 즉 중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육신이 잘되는 것은 귀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육신 생활 떠나야 우리 자녀들 잘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째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는 간증 중에 제일 큰 간증입니다. 둘째 간증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 번째는, 따라 하세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사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출세케 하셨나이다.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으로 위대한 임금으로 삼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 간증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할렐루야!" "첫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두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번째는 출세케 하시며, 네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문이 열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아 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무엇으로 소생시켜요? 푸른 초장으로,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한 번 더합시다.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성경 말씀 중에 예수 믿는 성도를 왜 돼지라고 안하고 양이라 했을까요? 양은 위가 두 개입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풀, 못먹는 풀을 가리지 않고 다 뜯어 먹고 위에 저장해 해요. 그 다음에는 시냇물가로 가서 다리를 꿇고 앉아

서 먹었던 것을 꼬집어내어 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말씀 목상이 새김질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가 말씀을 먹다가 새김질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다 부속된 것이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책을 좀 사 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책을 사 볼 길이 없어요. 이웃을 보니까 돼지를 키우더라고요. 양돼지인데 아주 돼지가 잘 컸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이거 신학교 다니고, 교회보고, 돼지 키우고 하려니 도저히 손이 모자라서 안돼는 거라요. 그래서 돼지를 안고 처가에 가 가지고 "장모님, 돼지 좀 키

데이." 그래 제가 "뭐요?" 깜짝 놀라 가지고 "뭇이 죽었어?" "돼지 죽었다, 이 사람아."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죽었는데 우알끼고?" 그 길로 돼지우리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상에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와 이리 갑자기 죽어 버렸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돼지고기 사오시면 꼭 새우젓을 함께 사오셨는데, 이게 새우젓을 먹었구나. 죽통 한 번 뒤져보자.' 고 해 가지고 죽통을 뒤지니 새우젓이 나오는 거라예. "어무이요, 이 새우젓 웬 일이에요?" "와 새우젓 먹으면 죽나?" 죽냐 하는데 그래 "새우젓 먹으면 죽어요."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주일 전에 새우젓 사가지고 밥상에 올렸는데, 며칠 동안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는 사람 없어, 오늘 돼지 팔지 싶어 가지고 니나 먹이라 카고 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 죽은 돼지를 얼마나 발로 내

밟으세요. 이런 저와 같은 거듭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거듭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한번만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받아 하세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말씀의 초장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은혜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간증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입니다.

자식을 낳아 갖다 내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결혼을 정식으로 안한 사람 중에는 사생아가 생기면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 중 자식을 갖다 내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궁핍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받아 하세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궁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저희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세요. 중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역경(逆境)이나 순경(順境)을 맞이할 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양을 한 100마리쯤 거느리는 목자가 있다고 가정해 합시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양을 몰고 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물이 없어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서쪽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래서 목자하고 양하고 아주 친밀한 친교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 참 기찬 얘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이 가다가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딴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감동시키십니다. 꿈으로 옵니다. 주일마다 설교가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성도는 돌아서서 눈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 이겁니다.

위 주소" 그러니까 "돼지는 또 와 키우라카노?" "책 좀 사볼라고요." "아이고, 모두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내 책값 주는 셈치고 정성 들여서 키워 주지." 그래 6개월 키웠더니 송아지만 해요. 대구 서문시장 돼지장수를 불러서 근으로 달아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에서 받는 1년 이상의 전도사 생활비 만큼 주려고 하는 거라요. 속으로 '앗따야, 참 값나가네.' 그때 팔았으면 뭘텐데 욕심이 많아 가지고 "좀 더 주소" 그러니까 "전도사가 욕심이 그리 많아서 되나?" "예? 당신, 나 전도사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웃 살면서 그것도 모를꼬? 그거면 됩니다. 내가 전도사라고 봐 줘서 그렇습니다." "어데에, 그래는 안될랍니다." 돼지장수는 돌아가고, 나는 내일 오면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후 기도하는 데 누가 마룻바닥을 탕 탕 치면서 오는 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도 남 기도하는데 방해해 가지고 되나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 하는데 갑자기 내 등허리를 콕 내리치는 사람이 있는 기라예. 너무 놀래 가지고 후딱 뒤돌아보니까 장모님이라예. "장모님, 와 이라잡니까?" "돼지 죽었

려 차버렸는지요. 돼지는 새우젓 먹으면 죽어예.

성도도 못먹을 것 먹으면 죽어요. 이단 사상, 그런 것 먹으면 탁 죽어 버리는 것이라예. 박태선한테 가는 것은 죽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은 집 갖다 넣었지, 살림 갖다 넣었지, 아무것도 없이 빈 손 들고 나오려고 하니 박태선은 안 믿지만 살기 위해서 거기 있다고 하는 거라예. 우리 성도가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이단 사상을 먹으면 죽어요. 교리를 가려야 되는 신령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 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정해 놓고 읽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졌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 영혼이 거룩해졌느니라" 거듭나고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간증 중에 제일 귀한 간증은 거듭나는 간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자라나고 모든 은혜가 자라나고 축복이 자라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둘째날(4월 2일) 저녁 집회 ●

지팡이를 들고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 '휘-익' 불면서 서쪽으로 돌면 동쪽으로 가던 양들이 전부다 뒤로 돌아 가지고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세 마리가 그냥 동쪽으로 끄덕 끄덕 가는 겁니다. 양은 모두 이름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냥 가면 어쩌야 되겠어요? 달려가서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버리는 겁니다. 두들겨 맞아요. 받아 하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은 안 가도 매는 맞는다." 매를 맞아요. 지은 죄가 있어서 정죄는 안 받아도 징계를 받는 겁니다. 막대기가 내려왔는데 두 마리는 돌아섰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 갑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것처럼 두들겨 때려도 말을 안들을 때는 다리라도 분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분질러서 봉대를 감아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하고 양하고 아주 친밀한 친교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것 참 기찬 얘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이 가다가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딴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감동시키십니다. 꿈으로 옵니다. 주일마다 설교가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성도는 돌아서서 눈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하지만 어떤 성도는 기어이 가버리기도 해요. 기어이 가서 분질러짐을 당한다 이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시를 잘하고 예언자고 선지자이고 왕이인, 다양한 은혜를 받은 그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쏘이다가 멀지 않은 곳의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 속에 욕을 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런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고 그 죄를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못 이겼나요? 그래요,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짓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가서 충고하고 들으면 그가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축복을 하겠다" "아이고, 아버지여, 남의 아내도 빼앗고 남편도 전쟁에 보내 죽이는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머리 10개 있어도 못건드릴테요." "죽을 각오하고 말해라." 그래서 다윗에게 갔는데 직고를 할 수는 없고 돌려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는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집의 말머리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을 놔두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거느리는 이 나라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나쁜 놈이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며 하는 말이, "그 놈이 누구니까? 오늘 당장 잡아들여서 목을 날릴 것이며 빼앗긴 양은 4배나 갚아드리리다. 염려하지 마소서." "왕이시여, 그 사람은 판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까? 여호와와 진노가 당신 집에 임하였나이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풀썩 주저앉고 이 일로 인해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밤마다 울어서 침료를 눈물로 적시며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범죄로 인해 다윗의 집은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는 안가나 징계는 받습니다.

나는 대구의 어떤 장로님이 무엇인

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손 한 번 가면 끝나는 겁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50명이 있는데 기도의 입을 막지 마세요." 끝까지 거역하다가 그 기업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임금이 못 되게 하려고 20년 동안 괴롭혔지만 마침내 때가 되니 하나님이 원수 집 앞에 상을 베풀어 놓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뿌려서 만승의 제왕으로 삼으시고 출세케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영육이 아울러 출세케 되는 축복을 받을 줄을 믿으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받아 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뜻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전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가 죽을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이 갑자기 뒤로 가시는 거예요. 뒤로 가서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가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받아 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가끔 목회하다가 머리가 시끄러우면 포항에 갑니다. 해수욕장에서 포항제철까지 30분쯤 걷는 길이 있는데 모래사장을 밟고 지나와 바위에 앉아서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같이 다른 발자국을 내지 않고 저 발자국을 지울 수 있을까, 저 발자국을 다른 모습을 내지 않고 저대로 밟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한데 파도가 와서 그 발자국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립니다.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40을 살고, 50을 살고, 60을 살아온 인생 세월의 역경 속에 나의 과거가 있나이다.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만, 주여, 임종이 가까워올수록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따라오면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흰 눈과 같이 깨끗하여진 후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발자국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바라던 천국 올라가서 주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어엿이 서겠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 이런 확실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5월 12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 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었지만 헌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 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 없는가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 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절 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뇌 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연구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 측정 및 건강 진단 / 헌혈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두루 살펴서 헌혈 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C형 간염 및 AIDS, 매독 항체검사 / 헌혈 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기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 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LT, 총단백, 알부민, A/G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지질대사의 이상 유무를 진단해 준다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성 봉 환

(목사, 제1교구, 새가정부, 교육연구소 지도)



5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대해 성경적으로 원리를 정리해 보고 우리 모두 가정천국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의 모양이 매우 딱딱해서 읽기에 지루할지 모르나 아무튼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

1.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기초이다

아름다운 단독주택이나 전원 같은 빌라나 우뚝 솟은 아파트나 빌딩은 모두 튼튼하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가정은 교회와 나라와 사회의 기초이다. 가정이 튼튼할 때 그 나라와 사회는 튼튼하다. 그러나 가정이 약할 때 그 사회는 약하다. 그러므로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이다.

2.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

(1) 영육간에 성숙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고후 6:14).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결혼을 전도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만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배우자로 인해 결혼 이후의 평생 혹은 반평생을 괴로움으로 보내고 있는

지 모른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겠다.

(2) 결혼이란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한몸이 되는 것이다. 양가 부모들은 과단성있게 신랑·신부를 독립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므로 결혼의 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랑·신부를 떠나보내라는 것이다(창 2: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라도). 그래야 올바른 연합이 성취된다. 둘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이다. 그 외는 다 죄다. 그리고 이 떠남, 연합, 한몸됨은 결혼기간 내내 평생 준수될 하나님의 계명이다.

(3)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엡 5:25).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나 비이기적인 지도자요, 섬기는 지도자요, 기뻐하는 지도자요,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이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내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다. 무조건적이다. 아내가 어떠한지 남편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헌신적 차원에서, 말씀 순종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 아내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못

할 때는 성령충만하지 못한 것이다.

(4)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엡 5:24). 이것도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충만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아내는 성령님의 뜻을 따른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것도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하라는 계명이 아니다. 무조건적이다.

(5)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엡 6:1). 자녀들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순종하면서 성장하여 결혼을 한다. 결혼 후에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성취되는 말씀이다. 가정에 주신 계명 중에서 이 부분에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엡 6:2, 3-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만큼 이 계명은 인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반면 귀중한 계명임을 보여준다.

(6)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엡 6:4).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으로 키워야 한다. 본을 보이면서 키워야 한다. 자녀 양육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성령충만해야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시간을 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열매가 열린다.

3. 몇 가지 제안

(1) 부부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 사역의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2) 가정천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져감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는 간절한 기도생활을 하자.

(3)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인생 향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안내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원리를 실천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저런 모습들이 원리처럼 고정되어도 아니되고 내 가정이 실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다른 가정의 실행 형태를 비판해서도 안된다. 다양한 실천을 계획하고 시도해 보자.

(4) 인간적 차원에서 가정의 인간관계 세우려 하지 말고 신앙적 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 서로가 잘한다면 가정 사역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속제요 현실로 알고 요셉처럼 그대로 끌어안고 감당해 보자.

(5) 삶의 안식처요 가장 편안한 가정을 신앙과 생활의 훈련장으로 삼아보자.

4. 결론으로, 가정의 천국화를

이것은 모든 교회의 과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사단은 가정의 파괴와 지옥화를 계속하고 부채질한다. 우리는 가정을 떠날 수 없다. 가정들이 하나들 하나님을 모신 천국처럼 서서히 변해갈 때, 교회도 소망이 있고 나라도 소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바라라고 계시겠는가.

새 가족부 목회자는 영적인 119구조대와 같다. 119구조대원은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긴급한 사고가 났다는 구조요청을 받을 때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만사를 제쳐놓고 비상등을 켜고 "이용이용" 소리를 내면서 달려간다. 급히 달려가 보니 환자가 호흡을 잘하지 못하면 인공호흡을 실시하기도 하고,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구출해 내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시민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 구조대원이 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다가 한 생명을 살려냈을 때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뿌듯한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동감하게 된다.

새가족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경우,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하는 구조요청을 받으면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달려간다.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숨가쁜 흥분과 설렘을 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새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도 신기하기도 하며 감격스러운 기쁨을 맛본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사단의 세력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

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온갖 유혹과 의심과 공포심을 심어준다.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때 영적 119구조대 목사로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정경다리

영적 119구조대 목사로서 새로운 보람을 느낀다

윤 삼 중

(목사, 새가족부 지도)

그러나 새가족을 심방하다가 보면 항상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만은 아니다. 사단의 방해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 때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울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도 경험한다.

한번은 서초동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달라는 구조 신호가 왔다. 그래서 영적 119구조대원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후에 그 가정으로 심방을 갔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

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소개하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촉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었다. 그 이유를 물어본즉 건강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불치의 병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 "예수님을

꼭히 권면했지만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선택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할 일은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영적 119구조대 목사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한계를 느낄 때 가장 비참함과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새가족이 심방받기까지의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심방을 받고 나면 너무나 기뻐하는 새가족들 얼굴을 볼 때마다 놀라운 새 힘을 얻는다. 때로는 한 영혼을 심방하기 위해 짜증나는 교통체증을 뚫고 찾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비능률적인 심방이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새가족 심방을 통하여 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피로가 사라진다.

영적 119구조대는 항상 새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구조요청만 하면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고, 구원 초청을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충헌교회 영적 119구조대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이 웬지 자존심이 상하고, 벼룩도 낮췄이 있지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계속 거부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으니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구원도 받고 불치의 병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간

토막소식

- ▶ 초등4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기로 하고 오늘까지 편지를 써오기로 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성경이야기대회를 개최한다. 신청은 오늘까지다.
- ▶ 초등5부는 오늘 성경이야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8일에 과별로 예선을 치렀다.
- ▶ 초등6부는 6월 2일 안드레초청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교사들은 오늘 집회를 마친 후 오전 10시 30분에 충현기도원으로 가서 준비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 ▶ 중등2부는 오는 6월 9일에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연자를 모집하여 지난 4월 28일 오디션을 거쳐 매주일 오후에 연습하고 있다.
- ▶ 대학부는 오는 5월 24일 야외예배를

- 계획하고 있다.
- ▶ 청년1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망부 위로잔치를 준비 중에 있다. 5월 12일 아버지주일에 청년1부 회원들이 소망부에 찾아가 꽃을 달아 드리고 준비한 선물과 다과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 청년2부는 오는 5월 19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 장년1부는 5월 26일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범위는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 10절까지이다.
- ▶ 장년3부는 오는 19일 학생특강을 실시한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관리' 이고 강사는 이화여대 장지영 교수이다.
- ▶ 새가정부는 오늘과 12일, 19일에 열리는 가정세미나를 위해, 지난 5월 3일 저녁 10시에 충현기도원에 모여 교사 특별기도회를 가졌으며 교사와 회원들이 하루 두번씩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왔는데, 성도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은혜받기를 바라

- 고 있다.
- ▶ 새가족부는 다음 주일(12일)에 십계명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가 지난 4

- 월 24일 출국했다.
- ▶ 가브리엘찬양대는 오는 5월 16일 조별찬양대회를 개최한다.

주부 교양 강좌 안내

성과 건강한 가정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 반면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거나 잊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성과 가정 사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한 옳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귀하를 강좌에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

시어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충현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
주제 : 건전한 성과 가정의 문제
강사 : 이동원 목사

- 윌리엄 팀메대학 졸업
-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 졸업
-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 선교학박사
- 미국 워싱턴 지구촌교회와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공동 목회

초등1~6부 연합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

6월 2일,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교인 가정 중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어린이 대상으로

교회학교 초등1~6부가 연합하여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6월 첫 주일(2일)에 실시될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는 초등1부에서 6부까지 해당 어린이를 초청하여 오전 8시 50분과 11시에 두 차례 초청 전도 집회를 갖게 된다. 이번 초청잔치는 부모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데 해당 자녀들이 초등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리 관계 및 예배 시간과 예배 마치는 시간 등이 맞지 않아 초등부에 참석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초청한다. 이 날 초등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한 예배시간대에 맞추어 초등부 예배를 실시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초등1~6부의 온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

새가정부에서 5월 가정세미나

교회는 5월을 맞이해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둘째 주일을 아버지주일로 각각 지키며 가정과 부모, 자녀 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지며 또한 각 전도회에서는 5월 중 가족 모임들을 계획하기도 한다.

한편 교회학교 새가정부(부장 이병옥 장로)에서는 가정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금년에 3회째로 모이는 이 세미나는 새가정부 회원뿐만 아니라 교회내의 가정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가정을 깨우자'라는 주제하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주간 계속되며 매 주일 교육관 314호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게 된다.

송길원 목사의 '가정과 교회'로 시작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충현의 부부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일별 강의내용과 강사 및 강사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송길원 목사(가정과 교회 / 5월 5일)

- 부산 새중앙교회 협동목사
-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소장

김임 교수(가정과 사회 / 5월 12일)

- 전주 완산교회 장로
- 연세대, 전북대, 원광대 외대 외래교수

정정숙 교수(가정과 학교 / 5월 19일)

- 충신대학교 교수
- 한국상담선교연구원 협동원장

옛말에 "불한자기급승단(不恨自家級繩短)하고 지한타가고정생(只恨他家苦井深)이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말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만 탓하고 있음을 직시하여 '남의 잘못 타령'의 어리석음을 정계한 대표적인 말인듯 싶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우리들의 원죄를 속죄하셨다. '자신의 피'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희생을 뜻한다. 그렇게는 못한다 해도 나의 잘못, 나의 허물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나의 겉 두레박 줄 짧은 것)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김으로 남의 잘못을 탓하는(남의 집 우물 깊은 것) 세대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여가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사랑과 용서를 채워야 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들은 더욱 그러하다.

오래 전의 일인데 해지만 어느 잡지사에서 원고황태에 온 일이 있었다. 황태에게까지 그러한 배려를 한 편집인이 고맙기도 해서 몇 자 적어 보낸 일이 있었다. 제목은 '장점만 보고 살자' 였다고 생각되는데 사람을 보는 데 있어 약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자고 역설한 부분에 생각난다. 사람만 아내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약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보자면서 장점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왜 약점까지 보려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얼마 전 유명인 지도급 인사가 말한 '뒷다리 잡기론'도 따지고 보면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찬하며 격려하기보다는 속소려 하고 내가 해야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의 속성...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가지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칭찬을 먹고 크는 동물"이라는 말까지 했다. 왜 상대

를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서로 야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흔히 세상에서처럼 자기 자신, 몇몇 주변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했다면 자기 집 두레박 끈부터 길게 고치기를 먼저 말하고 싶다.

앞서가는 사람,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기보다는 사소한 흠, 트집을 잡아 뒷말이나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을 미련없이 버리라고 감히 주장하고자 한다.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성.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고 하기보다는 단지 자기들끼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배방하는 한심한 작태. 이런 일들은 세상에 서 흔히 있는 일인데도 그리스도인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즐거한다. 사도신경 중 끝부분을 암송할 때 가장 힘주어 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생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물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도의 교통, 죄의 사함, 물이 다스리는 것, 이것은 곧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살며 생각하며 *

남의 탓 타령과 뒷다리 잡기

이희석

(집사, 제5교구, 원곡위원)

아프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죄상이요 남이 하면 천박하고 제멋스럽다'는 생각이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 같다. 또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유행하는 영입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 들어오면 민주, 애국지사고 때묻지 않은 인사이고 다른 당에 입당하면 변절, 배신, 지조 없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도 다 이런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

찬하며 격려하기보다는 속소려 하고 내가 해야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의 속성...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가지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칭찬을 먹고 크는 동물"이라는 말까지 했다. 왜 상대를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서로 야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즐거한다. 사도신경 중 끝부분을 암송할 때 가장 힘주어 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생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물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도의 교통, 죄의 사함, 물이 다스리는 것, 이것은 곧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